



[월간 노동시장 모니터]  
2014년 9월 노동시장 분석



2014.10.16 | 김수현\_새사연 연구원 | sida7@saesayon.org

2014년 9월 주요 고용동향

- 고용률, 실업률, 경제활동참가율
  - 2014년 8월 고용률은 60.8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상승
  - 실업률은 3.2%로 전년동월대비 0.5%p 상승
  - 경제활동참가율은 62.8%로 전년동월대비 0.7%p 상승
  - 고용지표는 개선 지속
  - 여성과 50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, 고용률 등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

그림 1. 고용률, 경제활동참가율, 실업률, 각 연도 8월 (단위 : %)



※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,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 
※ 출처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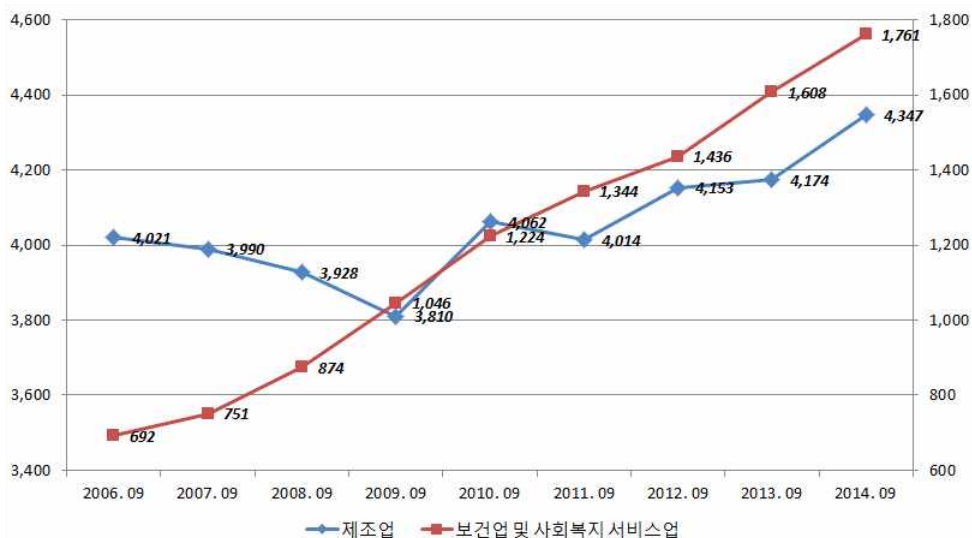


- 여성 고용률은 50.4%로 전년동월대비 0.6%p 상승. 여성 고용률 50% 이상이 유지되고 있음. 하지만 여전히 남성 고용률 71.7%에 비해 20%p 이상 낮음
- 연령대별로는 전체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함
- 20대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 2014년 9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7.5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상승. 다만,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.5%p 하락해 55.7%로 나타남
-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것은 50대 고용률임. 2014년 9월 현재 50대 고용률은 74.7%로 전년동월대비 0.7%p 상승
-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대와 30대 고용률의 개선이 필요함.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

□ 취업자

- 취업자는 2,591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1천 명 증가
- 산업별로 보면, 제조업(17만 3천 명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15만 3천 명), 도매 및 소매업(15만 1천 명), 숙박 및 음식점업(12만 3천 명), 교육서비스업(6만 명), 건설업(5만 1천 명)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, 농림어업(-12만 8천 명), 금융 및 보험업(-3만 7천 명), 운수업(-2만 6천명)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
-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임. 2014년 9월 현재 제조업의 취업자는 434만 7천 명임

그림 2. 제조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(단위 : 천명)



※ 제조업은 좌측 축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

※ 출처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

-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컸던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임.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, 2014년 9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76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.5% 증가함
- 성별로 보면 남성은 1,495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 2천명 증가. 여성은 1,096만 명으로 22만 9천 명 증가. 여성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짐

□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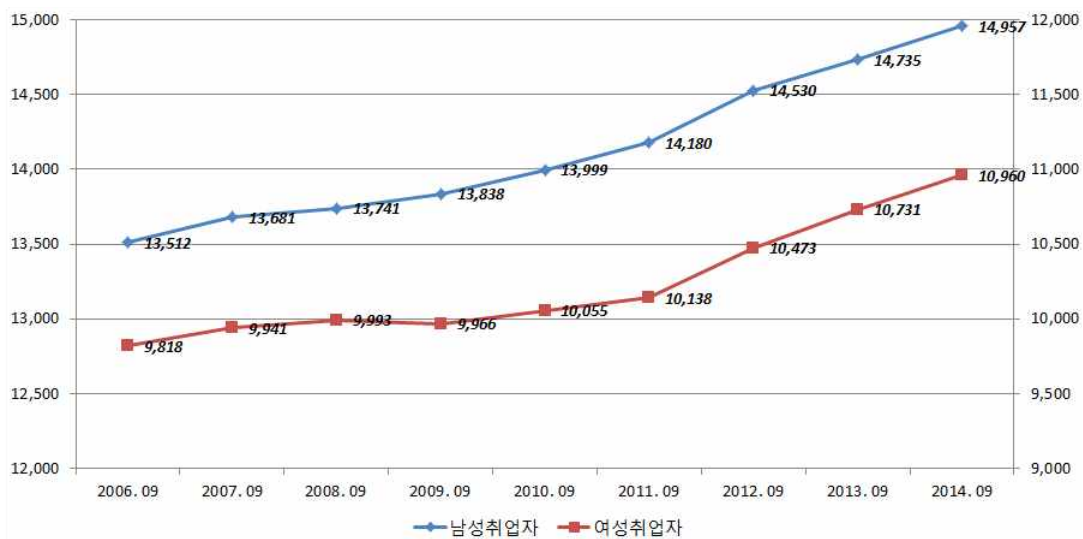
- 실업자는 84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 명 증가함
- 비경제활동인구는 1,584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3천 명 감소함
-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9천명 감소.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,047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3천 명 감소
-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면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, 여전히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임.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독려하는 정책적 방안이 수행되어야 함

늘어나고 있는 여성 노동자

□ 늘어나고 있는 여성 노동자

-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
그림 3. 성별 취업자 증가 추이 (단위 : 천 명)



※ 남성 취업자 수는 좌측 축, 여성 취업자 수는 우측 축 참조

※ 출처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

-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1,0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2014년 9월 현재 여성 취업자 수는 1,096만 명임
- 최근에는 남성 취업자보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
- 취업자 증가와 함께 여성 고용률은 50%를 넘어섬
- 2014년 9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50.4%임. 여전히 남성 고용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,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
그림 4.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(단위 : %)



※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,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

※ 출처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#### □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

-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음
- 통계청의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 2천 원으로 나타남.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71만 원에 비해 100만 원 이상 적음
-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큰 이유로는 우선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현실을 들 수 있음
- 2014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<sup>1)</sup>의 비중은 55.6%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 36.5%보다 19.1%p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이와 함께 같은 정규직,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여성의 경우 더 낮은 임금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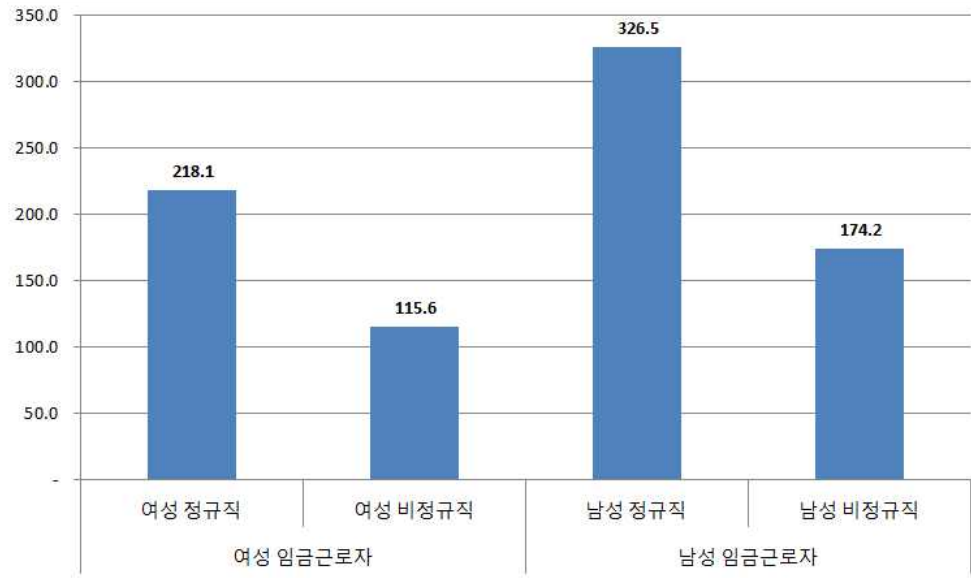
1) 여기서는 김유선 (2013)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측정하고 있음. 이는 종사상 지위 상의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본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비정규직과 차이가 있음



받는 현실도 큰 성별 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임

- 2014년 3월 현재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8만 1천 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326만 5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으며,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50만 원 이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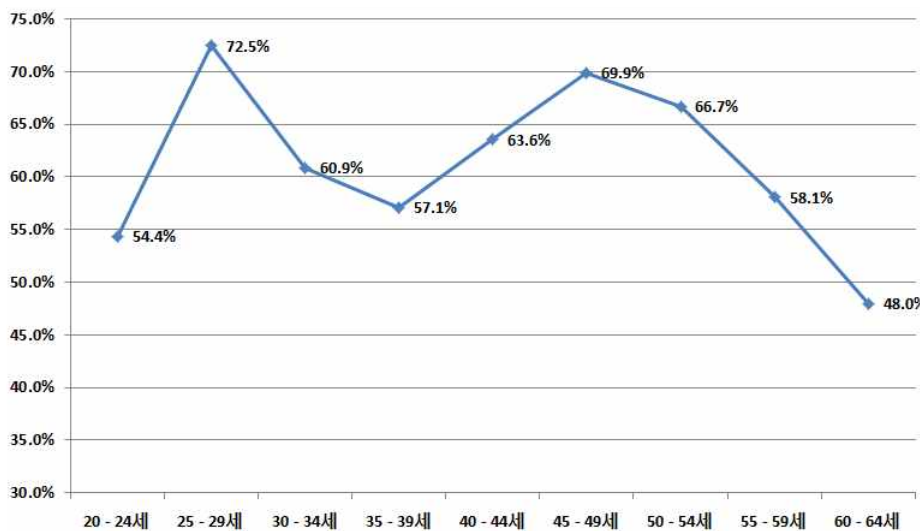
그림 5. 성별 임금격차 (단위 : 만 원)



※ 출처 : 통계청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추계

- 특히,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
- 경력단절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

그림 6.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(단위 : %)



※ 출처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(2014년 9월)

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,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.  
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,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.



- 2014년 9월 현재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, 결혼, 출산, 육아로 인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음
- 이는 여성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,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온 여성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- 계속되고 있는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📌



##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

2014년 10월 16일 현재

아젠다	발간일	제목	작성자
세계경제	1/15	지뢰밭 속 순항?	정태인
한국경제①	1/16	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	정태인
한국경제②	1/17	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해노믹스	여경훈
복지①	1/20	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, 민영화 폭탄	이은경
돌봄	1/21	진정한 '국가 책임 보육' 이 되려면	최정은
주거	1/24	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, 어찌 하오리까	강세진
노동	1/28	사라진 공약,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	김수현
복지②	1/29	노인, 대학생,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	이은경
노동	4/14	청년일자리정책, 새 방향에 답 있다.	김수현,강세진,최정은
노동	4/17	청년들이 원하는 '좋은 일자리' 는 무엇인가?	김수현,강세진,최정은
노동	4/21	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	김수현,강세진,최정은
주거	5/12	노인복지의 주요 이슈, 주거	강세진
경제	5/19	피케티의 "21세기 자본", 그리고 한국 경제 ①	정태인
정치	5/22	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	이은경
경제	5/26	피케티의 "21세기 자본", 그리고 한국 경제 ②	정태인
노동	6/2	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	이은경
경제	6/5	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	강세진
경제	6/16	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	강세진
복지	6/17	박근혜 2기 개각,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?	이은경
경제	6/19	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	이상호
의료	6/23	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	이은경
의료	6/26	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	이은경
복지	7/10	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	최정은
노동	7/14	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	김수현
경제	7/29	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, 앞으로도 계속 될까?	김수현
사회적경제	8/4	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(1) :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	이수연
사회적경제	8/5	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(2) :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	이수연
사회적경제	8/8	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(3):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	이수연
경제	8/22	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,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	김수현
주거	8/25	마을계획 :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	강세진
경제	9/2	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	정란수
보건복지	9/5	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	이은경
보건복지	9/11	9시 등교,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	이은경
고용	9/12	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	김수현
의료	9/15	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	이은경
주거	9/16	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,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	강세진
주거	9/22	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	강세진
사회적경제	9/25	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	이수연
보건복지	9/26	표류하는 공무원 연금	이은경
노동	9/30	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, 질적 측면 제고해야	김수현
사회적경제	10/10	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	이수연
복지	10/14	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, 소득자산 의미 없다	이은경
노동	10/16	2014년 9월 노동시장 분석	김수현

증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,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.  
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,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.